



# “더 열심히 하라고 주는 상으로 알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답 하겠습니다.”

제2회 가축개량대상 젖소부문 송라목장 김상호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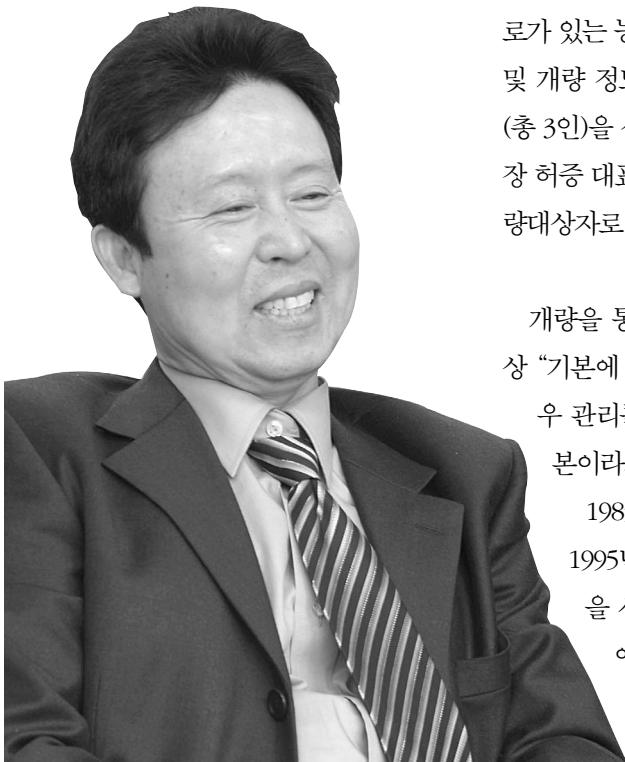
지난 2월 27일 본회 회의실에서 열린 총회에서 가축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젖소부문 수상자 송라목장 김상호 대표(54)는 “더 열심히 하라고 주는 상으로 알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답 하겠다.” 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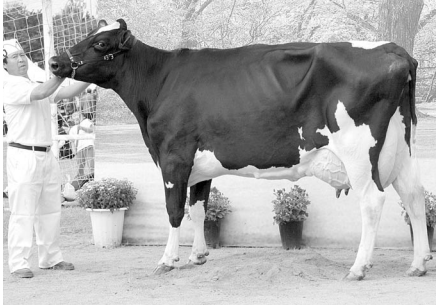
본회에서 실시되는 가축개량대상은 전년도에 이어 2회째 실시되는 것으로 한 해 동안 가축개량실적이 우수하고, 공로가 있는 농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개량사업 참여 및 개량 정도 등 엄격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축종별 각 1인(총 3인)을 선정하여 시상하게 된다. 이에 작년도 엑셀란 목장 허중 대표에 이어 송라목장 김상호 대표가 2번째 가축개량대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개량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는 김상호 대표는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무엇보다 육성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잘 먹이는 것이 사양관리의 기본이라고 말한다.

1985년 혈통등록을 시작으로 개량의 기초를 다진 후 1995년부터 검정과 심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개량사업을 시작했다는 김상호 대표는 무엇보다도 정액선별에 각별히 신경을 쓴다고 말한다.

“개량의 의미는 첫째로 돈 버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에 소가 유량이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2005년 한국홀스타인품평회  
성우부분 최우수 유방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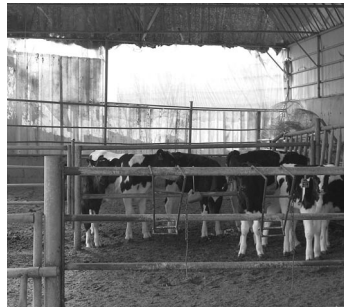
아침, 저녁 분 치우는 작업으로 유방염 및 각종 질병을 예방한다

송라목장 등록, 심사 및 검정현황(2006)

등록		심사		검정	
두수	혈통(%)	두수	점수	두수	유량(kg)
37	100	81	79.9	80	11,732

송라목장의 개량포인트!

1. 육성우 관리 철저히
2. 하루에 2번 분처리(조기 질병예방)
3. 경제수명을 늘리기 위한 체형중심의 정액선정



깨끗이 정돈되어 있는 육성우 우사



그보다 경제수명을 늘리기 위한 체형중심의 정액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김상호 대표도 처음부터 개량의 효과를 본 것은 아니었다. 초기에는 우유 생산량 증가 등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지만, 10년 후 산차를 거둬 할수록 더 많이 늘어나는 우유 생산량에 개량의 효과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한다.

김상호 대표는 앞으로 육종농가로 선정되어 유전형질이 우수한 한국형 종모우를 생산하여 한국낙농의 밑거름이 되고 싶다고 말하고 이에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청정화된 목장과 유전적으로 우수한 종축을 갖춘 목장을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2005년 성우부분 최우수 유방상송라목장 김상호 대표의 수상경력을 보면 한국홀스타인품평회에 6회에 걸친 출품으로 2005년도 성우부분 최우수 유방상을 수상하였고, 2006년도에는 2세 경산 시니어 최우수, 2세경산 주니어 및 성우부분 우수상을 수여한데 이어 베스트 쓰리 피메일 우수상을 수여하였다.

또한 서울우유 경진대회 8부 최우수, 준 시니어 챔피언, 2006 양주홀스타인품평회 그랜드 챔피언과 우수개량농가상을 수상하는등 많은 수상경력을 자랑하는 농가로 우유생산량과 품질이 가장 우수한 농가로 선정되어 농림부 장관상을 수상 한바 있다.